

군산의 근대도시발달과정과 도시조직의 변화 유형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이경찬* · 허 준**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A Morphological Study on the Modern Urbanization and Transformation Type of Urban Tissues in Kunsan

Lee, Kyung-Chan* · Huh, Joon**

*Dept. of Urban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modern urbanization process and the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urban tissues in Kunsan between the year 1899 and 2001.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morphological elements such as plot structure, building layout, building facades, land use, exterior space structure and their use, with actual field surveys, the analysis of land registration maps in 1912, and various topological map.

Morphological analysis on modern Kunsan is progressed by three steps-typo-morphological analysis of urban tissue in old-town area, interpretation of morphological process,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morphological structure in Japanese concession in view of plots system.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cyclical relationship among the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processes of morphological elements, plots, buildings, land-uses, and access space to buildings. From the view of town plan change, the period of restoration of war damage in 1950s and compressive growing period in 1960s have important meaning in the morphological process of old-town area. Particularly the first building plan and layout type together with plot form and structure is acted as the main factor to decide the subsequent plot transformation system, exterior space system and the particular streetscape in Kunsan.

Key Words : Urban Tissue, Plan Unit, Town Plan, Morphological Structure, Plots System, Exterior Space System, Kunsan

[†] : 본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Chan Lee, Dept. of Urban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Jeonbuk, 570-749, Korea. Tel : +82-63-850-6730, E-mail : lkchan@wonkwang.ac.kr

1. 서론

도시개발의 역사적 단계에 관한 내용은 도시가 지니는 물리적 구조와 이러한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커뮤니티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공간 연구의 주요 논제들로 간주된다(Dickinson, 1961). 도시개발의 역사적 단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는 측면의 하나는 형태단위의 누적화 개념이다. 현재의 도시공간은 개개 시기의 문화적 요구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형태단위들의 형성(formation)·변환(transformation) 과정이 누적된 결과물로서, 여기에는 시가지 구역의 확산이나 내부공간의 개수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형태적 특성들이 집합되고 적층화 되어 있다. 역으로 이것은 현재의 도시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시기에 표출되었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시형태는 개개 형태요소들이 지니는 형태 특성구 집합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Dickinson, 1961). 형태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형태요소들의 집합화 측면에서 도시형태는 필지, 건물, (가로)공간이라는 형태요소들이 조합되어(Conzen, 1960:1975:1981:1988; Whitehand, 1992) 플랜유닛(plan-unit: 또는 도시조직 urban tissue)을 형성하고, 이들이 모여 도시구역(plan division 또는 평면구획, 도시형태구획), 형태지역(morphological region)으로 진화하는 위계적 구성체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Kropf, 1993:1996). 형태위계상의 한 층을 형성하는 형태단위들은 지역성과 시간성을 반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지, 건물, (가로)공간의 조합방법에 따라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한 시기의 도시공간이 지니는 형태단위들 사이의 차별적 특성이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라 한다면, 동일한 형태 특성을 지니고 있던 형태단위가 서로 다른 시기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결부되어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되어 당해 시기의 고유한 형태 특성을 표출하게 된다. 형태학적 측면에서 형태단위의 변환과정에 누적되어 있는 개개의 층은 형태시기(morphological period)¹⁾로 정의된다. 결국 도시공간은 형태시기에 따라 고유한 형태요소들의 조합체계를 지니는 형태단위구역들이 공간적으로 모아 이크화되고 시간적으로 적층화된 결과물로 인식되는데,

위계요소(형태단위)들 가운데 특히 도시조직이나 도시구역은 도시발달과정과 관련한 형태시기를 분석하는 유용한 형태단위가 된다.

본 연구는 형태단위(plan-unit) 개념²⁾을 바탕으로 군산 시가지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군산 시가지의 발달과정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그 하나는 군산 기성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현재의 도시평면에서 관찰되는 형태단위구역을 설정하고 기원론적인 측면에서 그 형태적 특성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말기(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군산진지도)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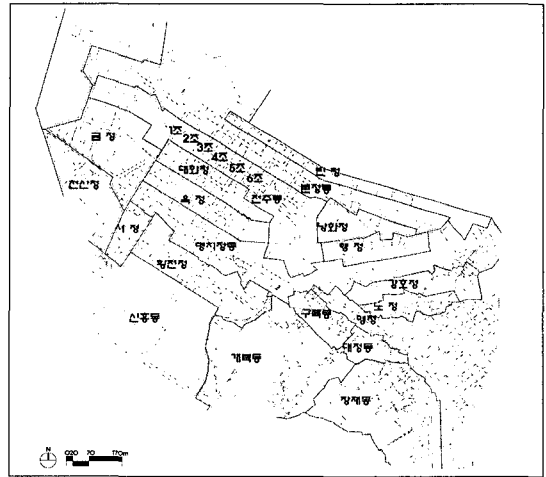


그림 1. 1912년 군산 시가지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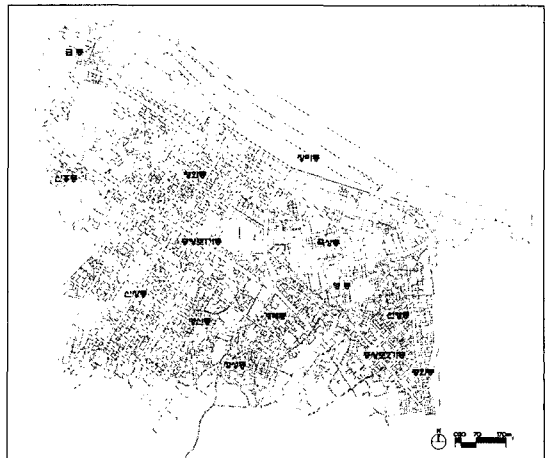


그림 2. 2001년 군산 시가지 행정구역도

발간된 다양한 지도자료에 대한 분석이 수반된다. 다른 하나는 1899년 군산 개항 당시 조계지³⁾로 설정된 구역에 대한 시기별 플랜-유닛(plan-unit)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변용계열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1914년에 제작된 지적원도를 비롯하여 토지대장과 폐쇄지적도 및 2001년 현재 지적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그림 1, 2 참조).

II. 군산의 근대 도시화 과정과 시가지 평면단위 구성체계의 변화과정

1. 도시발달과정과 평면단위

도시평면을 구성하는 형태요소들의 특성을 기초하여 전체 도시지역을 다수의 형태단위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발달과정을 해석하거나 설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도시형태연구에서 자주 채용되는 접근 방법의 하나이다⁴⁾. 도시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이들 형태단위구역이 지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개개 시기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형태요소들의 속성은 시기별·지역별로 차별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역으로 형태요소들의 속성을 통하여 도시발달단계를 해석하거나 도시발달과정에 작용하였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형태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도시공간 연구는 도시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문화적·형태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씩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필지(plot), 건물(building), (가로)공간(space) 등 3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도시형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형태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도시조직(urban tissue)이나 평면단위(plan unit), 평면구역(plan division), 형태지역(morphological region) 등의 용어는 바로 이러한 형태요소들에서 관찰되는 동질적인 형태특성에 기초한 형태단위구역의 구획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형태단위구역은 형태요소들의 집합화에 기초한 위계적 구성체계를 지니는 것으로 하위위계를 형성

하는 도시조직이나 평면단위가 일정한 형태요소들의 형태속성이 인접한 곳과 차별화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면, 평면 구역은 평면단위들이 응집되어 이루어진 구역단위를 지칭한다.

2. 군산 시가지의 도시조직 구성체계

본 연구에서 군산 시가지의 도시조직을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간적 범위는 군산역과 내항을 연결하는 철도 부지와 북동부 월명공원 및 명산시장 우측 도로로 에워싸인 구역으로 행정구역상 금동, 신흥동, 금동, 신창동, 명산동, 창성동, 개북동, 영화동, 신영동, 영동, 평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동, 중앙로 2가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현재의 지적도를 통하여 연구 대상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로와 필지 분포양상을 관찰해 보면 부정형의 가로와 필지구성패턴을 지닌 북서부 신흥동·금동 일대와 남동지역 창성동·개북동, 죽성·신영동 일대, 가로를 따라 명확한 선형의 필지구성패턴을 보이고 있는 영동·중앙로 2가동지역, 격자형 가로망과 더불어 정형적인 필지구성패턴을 보이고 있는 중앙부 영화동·신창동 일대, 그리고 장미동·영동·평화동을 중심으로 정형가구와 부정형 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전이지대 등 구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단위구역에 기초한 군산의 근대 도시발달과정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가로와 필지의 형태 특성이 지니는 구역별 차별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형태단위구역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2001년 현재 군산 시가지의 도시조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 3, 4 참조).

- ① 변형-가구분할형1 도시조직(B-2, B-3, D-4, D-5) : 격자형 가로망에 기초하여 방형의 가구와 세장형의 방형 필지로 구성된 도시조직으로서 연구대상지의 중앙부 영화동·신창동 일대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도시조직은 격자형 가로망과 정연한 필지분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지만, 가구형태와 규모·가구 내부의 세 가로 체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창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조직(D-4, D-5)이 영화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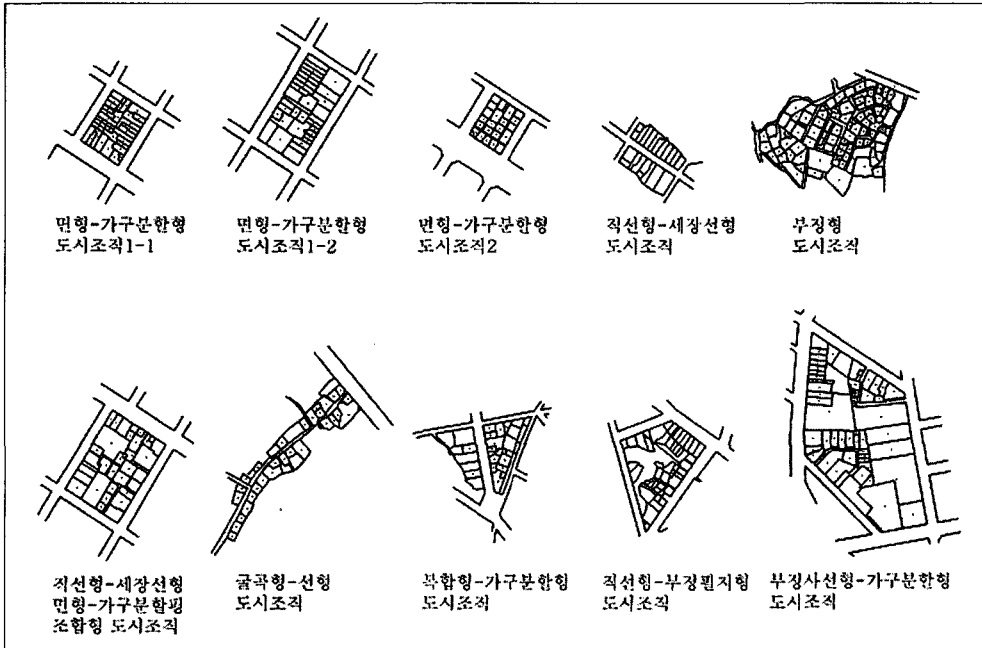


그림 3. 군산 시가지 도시조직 기본유형도(2001년)

의 도시조직(B-2)에 비하여 훨씬 세장비가 큰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영화동 중앙부 단일가구로 구성된 도시조직(B-3)에서는 직교하는 세가로에 의하여 가구가 4개의 세가로로 분할되는 모습을 보여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면형-가구분할형2 도시조직(A-2, A-11, B-1) : 가구분할체계가 면형-가구분할형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구 내부의 필지조직이 정방형의 필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조직으로서 영화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 ③ 직선형-세장선형 도시조직(F-1, F-4, C-3, C-4) : 깊이가 균질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접도폭원을 지니는 세장형의 필지들이 직선의 구획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늘어선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영동거리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 ④ 부정형 도시조직(E-1, E-2, F-3, F-5) : 부정형의 가로와 부정형의 필지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창성·개복동과 죽성·신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 ⑤ 직교직선형-세장선형+면형-가구분할형 조합형 도시조직

도시조직(B-4, B-5, D-2, D-3) : 직선형-세장선형 도시조직과 면형-가구분할형 도시조직이 결합된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일제 강점기 전주통과 구 시청 북서면을 접하고 있는 도로(일제강점기 6조통), 특히 6조통의 연장선상에서 중앙로와의 교차점을 기점으로 한 남서측 구간에서 발달되어 있다.

- ⑥ 굴곡형-선형 도시조직(E-4,F-2) : 부정형의 선형 특성을 지닌 세구획가로와 접도폭원이 넓은 연도변 필지가 결합된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시가지 남동부 창성동과 개복동 일대에서 관찰되고 있다.
- ⑦ 부정사선형-가구분할형 도시조직(A-4, C-5, C-6, C-7) : 사선형으로 배치된 직선가로로 구획된 부정형 가구에 정형적인 방향의 필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시가지 남동부 평화동, 북서부 금동과 동부 장미동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 ⑧ 복합형-가구분할형 도시조직(A-7, D-6, D-7, D-8, E-3, G-1, H-1) : 부정형의 세가로나 필지경계선이 격자형의 가로망과 결합되어 부정형의 가구형태를 이루고 이것이 정형적인 방향의 필지로 세분화되는 형태의 도시조직으로서 시가지 남동부에 분포한 부



그림 4. 군산 시가지 도시조직 구성체계도(2001년)

정형 도시조직이나 직선형-세장선형 도시조직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 ⑨ 직선형-부정필지형 도시조직(A-3, A-7, A-9, D-1) : 직선의 구획가로로 구획된 가구에 부정형 필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의 도시조직으로 신흥동과 금동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3. 군산 시가지 평면단위 구성체계 해석

1) 일제 강점기 이전의 군산 시가지 변화과정

도시발달과정 연구와 관련하여 형태단위구역의 분석이 지니는 의미는 도시형태를 통하여 형태외적 측면에서 도시에 작용한 힘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형태단위구역의 분석은 서로 다른 입지조건과 잠재력을 지닌 구역들이 도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이나 도시성격과 기능변화로부터 야기되

는 수요에의 적응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말기 군산진과 (칠읍)해창을 중심으로 해안군사거점과 유통상업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던 군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과 함께 각국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군산 시가지 일원은 공유수면 매립공사(1905년~1930년)와 군산항의 축항(1차: 1905년~1906년; 2차: 1909년~1915년; 3차: 1926년~1933년; 4차: 1936년~1938년; 한국전쟁당시 파괴 후 1953년 재건)과 전군도로 개설(1907년 5월 1일~1908년 10월 개통), 군산선 개통과 군산역 건설(1912년 3월 6일) 등 도시구조에 지각변동을 야기시키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함께 일제 강점기에 기본골격이 형성되었다.

1872년에 작성된 <전라남도 군산진지도>와 1899년 10월에 작성된 <군산각국조계도>를 통하여 관찰되는

연구대상지는 ① 대사산(월명공원 정망대가 있는 산) 서측 현 군산의료원과 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해창(대사산지구) ② 수덕산(군산항 축항공사로 없어짐: 현 영화동 코렉스 마트 옆에 있는 바위암벽의 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군산진과 주변의 (어촌)마을들(구영리: 현 영화동, 강변리: 현 중앙로 1가)(영화지구) ③ 수덕산과 월명공원 사이 저지대(수덕산 저지대) ④ 개항 직후 각국 거류지로 설정된 대사산과 수덕산 하부의 저습한 평지구역(면적 572,000m²)(각국 거류지구) ⑤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던 각국 거류지구 하부 신창동 일대 저지대(신창지구) ⑥ 창성동과 개복동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산지와 구릉지대(창성지구) ⑦ 개복동과 창성동 일대의 구릉지대 하부의 명산동 일대 저지대(명산지구) ⑧ 현재의 군산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했던 동령산 일대(현 전북은행, 제일은행 주변)(동령산지구) ⑨ 동령산과 石興(현 금암동 해안파출소 인근에 있었던 돌산), 금강 사이 현 장미동 일원의 저습지(장미지구) ⑩ 꾀보선창이라 불리우는 죽성포구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거상, 객주 활동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던 동령산으로부터 금강을 연결하는 셋강(현 구시청앞 대학로) 주변의 영동, 죽성동 저습지⁵⁾(영동지구) 및 동령산 남측구역을 평화동 일대의 저지대(평화지구) 등으로 구분된다(그림 5, 6 참조).

1911년 3월 31일에 작성된 각국 조계평면도를 통하여 관찰되는 군산 시가지는 1899년에 영화동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각국 거류지가 북동쪽으로 수덕산과 대사산 저지대까지 남서쪽으로 동령산을 넘어 장미지구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1911년 각국 조계지로 신규편입된 지역과 1899년에 기설치된 각국 거류지를 비교해 보면 가구의 규모나 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가로의 주향 역시 이전에 비하여 규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가구 내부의 필지분할을 살펴보면 가구 중앙부를 중흥으로 구분하는 필지선에 기초하여 가구를 일정한 크기의 필지로 등분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1899년 각국 거류지와는 달리, 비교적 정형적인 필지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소간의 자유스러운 필지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새롭게 편입된 각국 조계지가 안고 있는 지형



그림 5. 조선 후기 군산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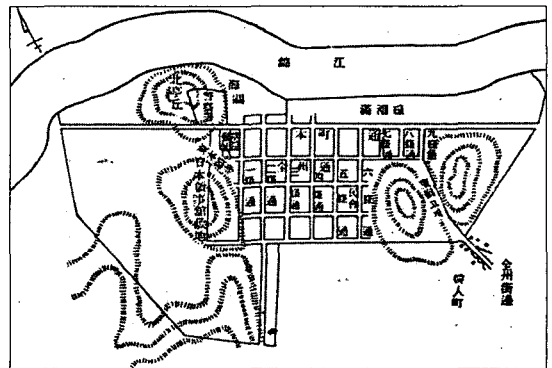


그림 6. 1899년 군산 각국조계도(자료: 香川源太郎, 1902, p.255)



그림 7. 군산 각국 조계평면도(1911년) (자료: 손정목, 1982, p.304)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실제 1905년부터 시작된 군산항 축항공사와 더불어 각국 조계지가 확장되고 기존에 산지 지형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령산지구와 수덕산지구, 대사산지구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가져왔다. 이상의 표면적인 관찰결과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형태단위구역의 분석과정을 진행하여 보면 1911년 각국 조계지에서 관찰되는 도시조직은 ① 1899년 각국 거류지가 설치된 구역에서 가구를 등분하면서 장방형의 가구 중앙부를 종형으로 관통하고 있는 필지 분할선을 기준선으로 필지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패턴 ② 해망로(본정통)과 향만 사이에 선형으로 위치하면서 1899년 각국 거류지 설치 당시의 필지 구성체계와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선형의 가구들 ③ 산지와 구릉지형 지형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사산·수덕산 일원과 동령산 일대, 그리고 석흥 ④ 1899년 각국 거류지 서북측 대사산·수덕산 주변의 신설 가구에서 관찰되는 정형적인 필지분할패턴 ⑤ 1899년 각국 거류지 동남측 동령산 주변의 신설 가구에서 관찰되는 정형적인 필지분할패턴 ⑥ 1899년 각국 거류지에서

관찰되는 가구형태와 필지분할패턴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동령산 서북 접경부 일대의 필지패턴 등의 6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2) 1912년 현재 군산 시가지의 평면단위 구성

1911년 각국 조계평면도가 만들어진 3년 후인 1914년에는 지적원도가 작성되었다. 1914년에 제작된 지적원도는 각국 조계지는 물론 조계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시가화 양상을 필지단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항기 군산의 도시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단위구역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1911년 각국 조계평면도와 1914년 지적원도를 비교해 보면 각국 조계평면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신창동, 명산동, 영동, 개북동, 창성동, 중앙로2가동, 평화동 일대의 도시평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14년 지적원도를 이용하여 형태단위구역의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군산 시가지의 평면단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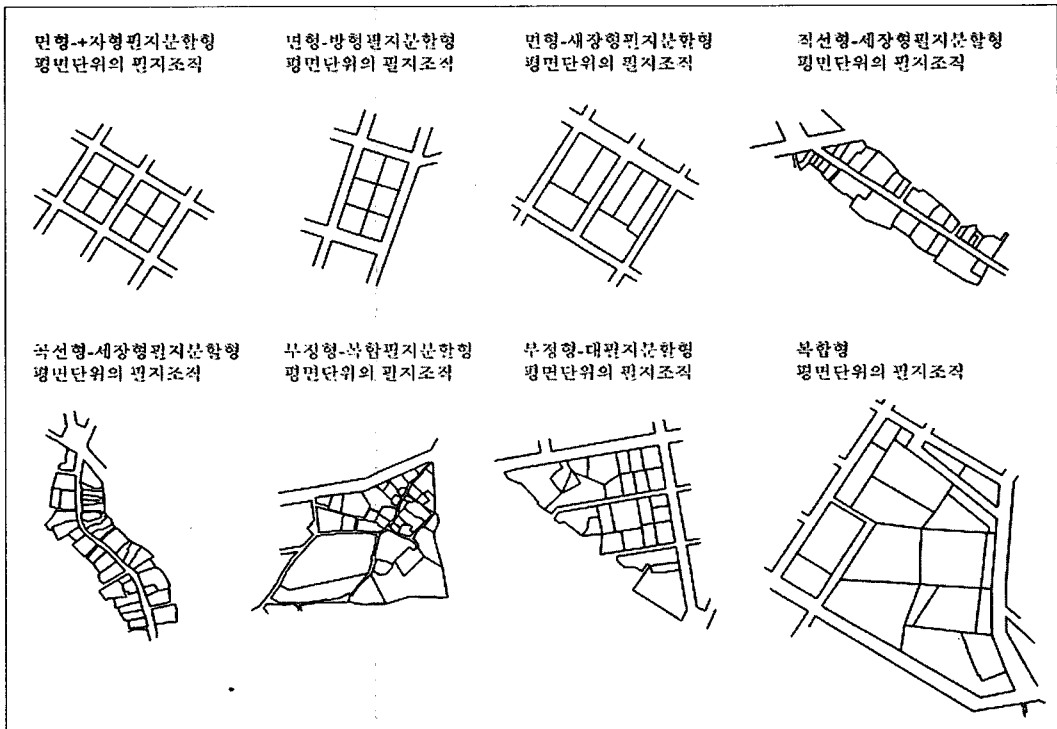


그림 8. 군산 시가지 도시조직 기본유형도(1914년)

- ① 면형-십자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A-1, A-2) : 격자형 가로망에 기초하여 정방형에 가까운 가구와 필지로 구성된 평면단위로서 연구대상지의 중앙부 영화동 일대를 점유하고 있다.
- ② 면형-방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B-1, C-2) : 격자형 가로망에 기초하여 장방형의 가구와 필지로 구성된 평면단위로서 금동, 장미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 ③ 면형-세장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D-1, D-2) : 격자형 가로망에 기초하여 장방형의 가구와 세장형의 필지로 구성된 평면단위로서 신흥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 ④ 직선형-세장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G-1, G-2) : 깊이가 균질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도폭원을 지니는 세장형의 필지들이 직선의 구획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늘어선 형태의 평면단위로서 영동거리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 ⑤ 곡선형-세장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D-3, E-3, F-1, F-2) : 유사한 점도폭원을 지니는 세장형의 필지들이 곡선의 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늘어선 형태의 평면단위로서 개복동과 장제동의 중앙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 ⑥ 부정형-복합필지형 평면단위(D-4, E-1, E-2, I-1) : 부정형의 대소 필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평면단위로서 명산동과 창성동, 개복동, 신흥동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 ⑦ 부정형-대필지형 평면단위(B-2, C-1, C-3) : 부정형의 대형 필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면단위로서 금동과 개복동, 장미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 ⑧ 복합형 평면단위(B-3, H-1) : 부정형의 가구형태에 비교적 정형의 필지들이 분포되어 있는 평면단위로서 죽성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1914년 지적원도에서 도출되는 평면단위의 분포형태를 개항 이후 시가지 발달과정 및 지형특성과 대비해 보면 상호간에 밀접한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영화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면형-십자형 필지분할형 평면단위는 1899년 개항 당시 설정되었던 조계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형적으로 저습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평지를 이루고 있고, 면형-방형필지분할

형 평면단위는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저습지로의 확장 구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면형-세장형필지분할형 평면단위는 앞의 두 가지 유형과 유사한 가구분할패턴을 지니고 있지만 불규칙적인 배치패턴을 지닌 세장형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는 주로 대학로와 중앙로변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계지 남측 평지부로의 자연적인 확산과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지적원도에서 관찰되는 부정형-복합필지형 평면단위와 부정형-대필지형 평면단위는 시가지내 구릉지와 산지에 해당하는 곳에 분포하고 있고, 복합형 평면단위는 산지와 구릉지로 에워싸인 분지나 평지부로의 전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형적인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가지 동남단지역과 중앙로 1가(명치동)를 연결하는 영동 일대의 굴곡형 세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발달된 세장형 필지분포패턴과, 영동거리(영정)를 따라 형성된 점도폭원이 크고 세장비가 작은 필지들이 선형으로 발달된 평면단위는 면형의 평면단위와 다른 형태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E-3)도 있지만 전주·익산방면으로부터 군산 조계지로의 진입로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인 평면단위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조선 말기 채보선창이라 불리우는 죽성포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거상, 객주 활동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던 한인상가지역과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상설상가기능과 연계된 도시조직형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그림 9 참조).

3) 일제 강점기 군산 시가지의 변화과정

한편 1923년과 1934년에 제작된 군산 시가도에서는 기존의 지도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던 모습이 나타난다(그림 10, 11 참조). 무엇보다도 주요 가로를 따라 필지가 세분화되면서 가구단위로 통합되어 있던 도시조직이 도로경계선을 따라 하부 조직으로 분화되고 이들이 가로를 중심으로 재통합되면서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선형의 열식 도시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중심상권이었던 전주통과 명치동(중앙로)에서 명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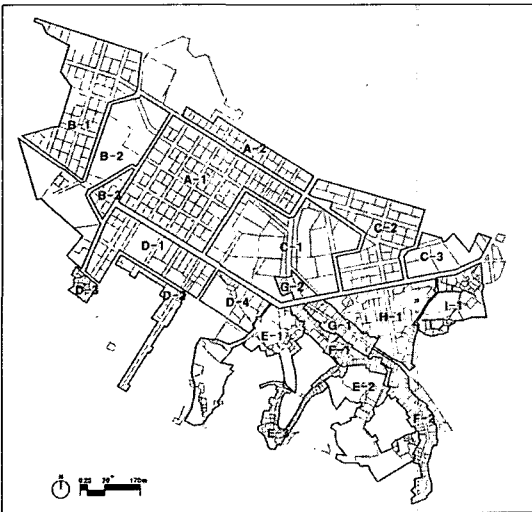


그림 9. 1914년 지적원도에서 나타난 평면단위 분포도

표출되고 있는데, 이처럼 상가 기능이 발달하면서 가로
변에서 나타나는 필지 세분화 현상은 이후에 발생하는
가구내 (막힌)골목길과 연계된 필지 세분화 과정과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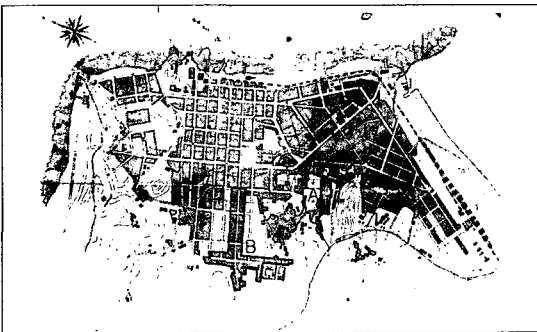


그림 10. 1923년 군산 시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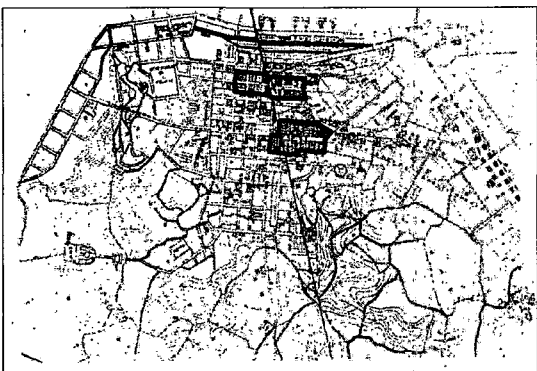


그림 11. 1934년 군산 시가도

지 병합 과정, 그리고 구획가로확장 개수과정과 어우러
져 도시조직을 재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군산 조계지의 평면단위 변용계열

격자형 토지구획과 田자형 필지분할에 기초하여 이
루어진 형성초기 조계지의 형태⁶⁾는 다양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그 형태적 특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현재의
군산 시가지에서도 필지나 건축물, (가로)공간의 측면
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명확한 형태단위(도
시구역 또는 형태지역)를 형성하고 있어 그 변환과정
을 이해하는데 형태학적 개념이 아주 유용한 틀이 된
다.

1914년 지적원도를 기준으로 1899년에 설정된 군산
조계지에서 관찰되는 평면단위는 영동거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선형의 열식 평면단위와 더불어 가장 특징적인
패턴을 취하고 있다. 1899년 당시 격자형 가구분할 위
에 十자형 필지분할 패턴에 기초하여 균질한 필지구성
체계를 지니고 있던 조계지의 평면단위는 일제강점기
와 전채복구기,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합분필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군산 조계지
의 필지분할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가로와 수
직방향으로 깊이 깊은 세장형 필지와 정방형의 필지를
채용한 필지분할이다. 이 과정에서 분할필지의 깊이와
방향에 따라 켜가 분할되고 골목길이 형성되면서 개항
당시 가구를 기본단위로 형성되어 있던 조계지의 플랜
유닛(plan-unit) 구성패턴이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소
구획별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14년 지적원도 작성 이후 군산 조계지의 가구와
필지구성체계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그림
12 참조), 해방 이전까지만 하여도 대학로(五條通)변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분필활동이 전주통과 옥정,
一條通, 二條通으로 확장되고, 전채복구기와 1960년대
압축성장기(1956~1966)에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현재
연구대상지에서 관찰되는 필지구성체계의 틀이 완성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계지에서 관찰되는 분필
활동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분필과 합필활동 중에서도
군산 조계지 형성 당시의 가구내 十자형 필지경계선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산조계지에 대한 도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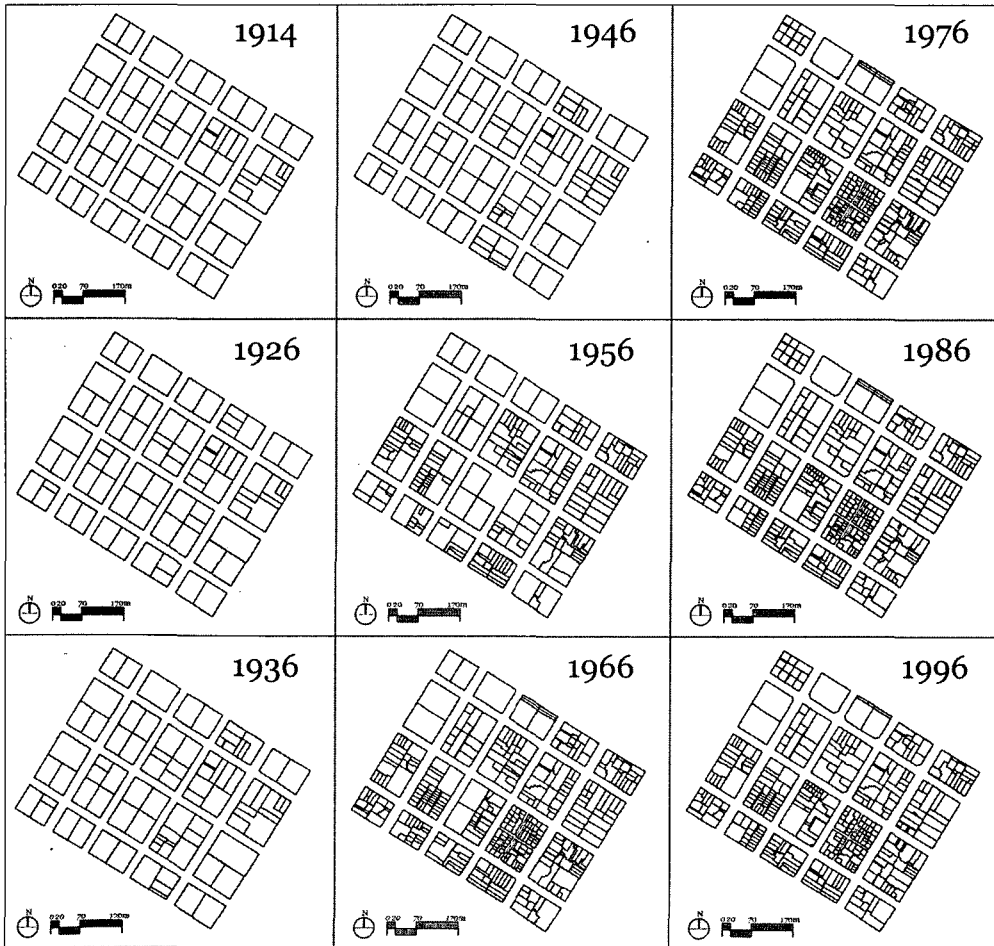


그림 12. 군산 조계지 필지구조의 시기별 변화과정(1914년~1996년)

직 분석의 기본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3은 지적원도 작성 당시의 필지를 기본단위로 대상구역내 주요 가로와 지적원도상의 모반(원필지)별 필지체계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대상구역에서 관찰되는 필지분할유형을 살펴보면 방형 필지의 장변을 기준으로 한 깊이방향으로의 커 분할패턴과 가로변 필지전면폭, 그리고 통로의 형성패턴 등이 중요한 분석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적원도 작성당시 지번별 필지구성체계의 변화패턴을 유형화해 보면 그림 14와 같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보다 세분할 경우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중폭2켜 분할형 : 유사한 규모의 정방형 필지를 채용하여 2켜로 분할되는 형태로 필지 사이의 막

힌 골목길을 통하여 가로로부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유형으로서, 독립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배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② 복합폭2켜 분할형 : 원필지의 단변에 직각방향으로 비교적 폭이 넓은 분할필지가 형성되고 장변방향으로 깊이가 얇고 폭이 좁은 분할필지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가로변 일식 장옥이나 해방 이후에 축조된 장옥형 건축물이 개개 주호단위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중폭1켜 분할형 : 원필지의 장변에 직각방향으로 깊이가 깊고 폭이 좁은 분할필지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가로변 일식건축물이나 중정형의 중국식 주택에서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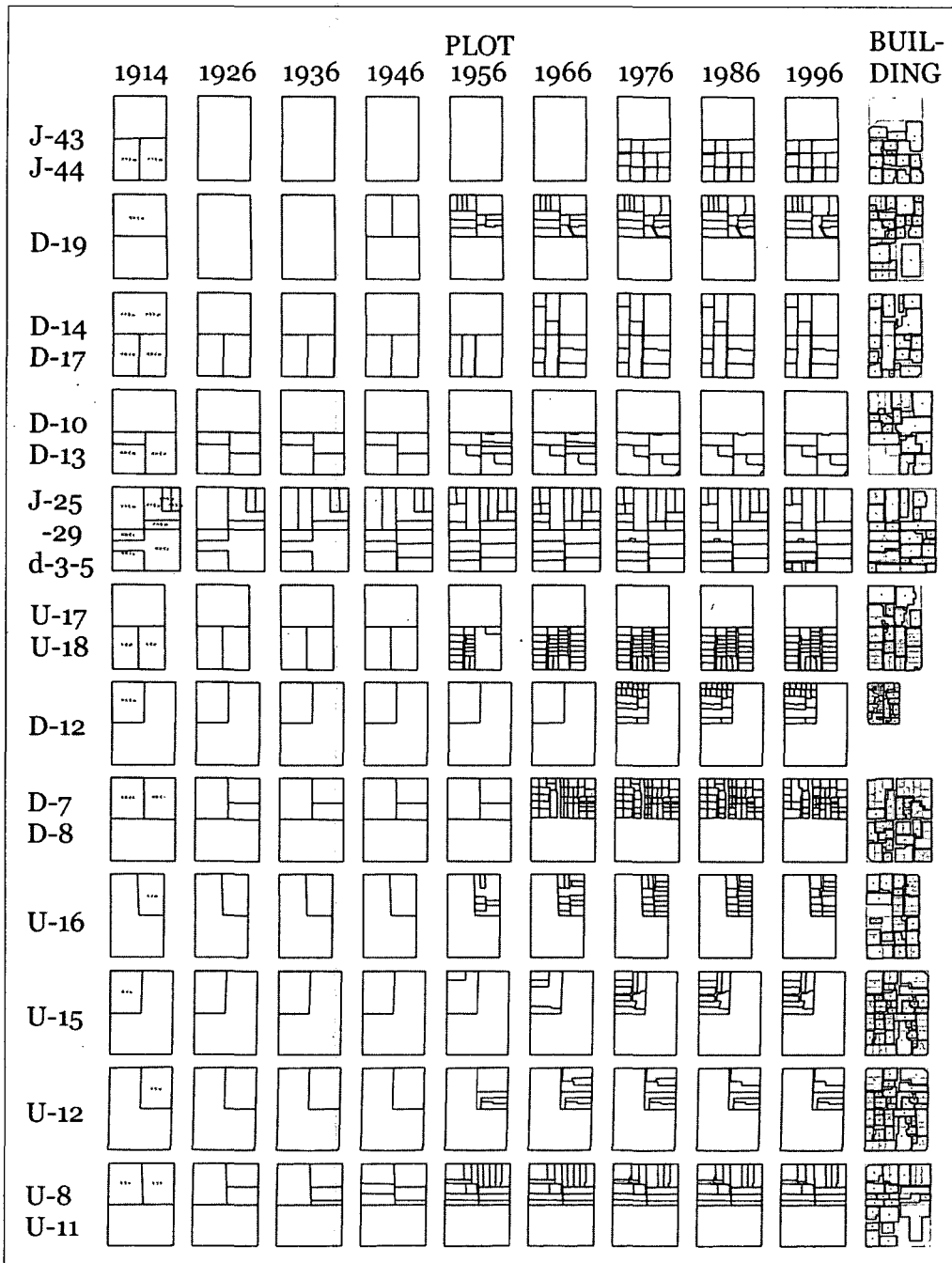


그림 13. 군산 조계지 평면단위별 필지조직 변화과정 분석도

④ 복합폭1켜 분할형 : 원필지의 장변에 직각방향으로 깊이가 깊어 폭이 좁은 분할필지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가로변 일식 장육이 개개 주호단위로 분

할되는 과정이나 중정형의 중국식 주택에서 주로 나타난다. 동 유형은 후속되는 분필과정을 거쳐 단변에 접한 필지의 열방향 분필과정을 수반한

‘협폭복합커분할형’이나, 단변 열방향 분필과정과 장변으로의 쉼분할과정을 수반한 ‘복합폭복합커 통로연계분할형’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⑤ 광폭2켜 등분할형 : 원필지의 단변 중앙부에 직각 방향으로 깊이가 깊은 분할필지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가로변 일식 장옥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과 후면의 외부공간이 별개로 분할하는 초기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동 유형은 후속되는 분필과정을 거쳐 ‘복합폭2켜분할형’으로 진화하거나 단변 중앙부의 필지 경계선을 따라 통로가 개설되면서 ‘협폭2켜 통로연계분할형’이나 ‘협폭복합커 통로연계분할형’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⑥ 광폭2켜 부등분할형 : 원필지의 단변 중앙부의 한 변에서 직각방향으로 깊이가 깊은 분할필지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후속되는 분필과정을 거쳐 단변에 직각방향의 통로가 개설되면서 ‘협폭3켜 통로연계분할형’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지적원도상의 원필지에 대한 필지체계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건축물구조 및 토지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지에서 관찰되는 원필지의 분필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소위 집장사 주택과 연계되어 분필활동이 진행된 광폭2켜 분할형이나 장옥형 시장상가의 발달과정을 수반한 광폭2켜 부등분할형 후 협폭3켜 통로연계분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필형태가 가로에 직각방향으로 세장한 필지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필지분할패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되는데 그 하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가로변 일식 건축물이나 중정형의 중국식 건축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증폭1켜 분할형이며, 다른 하나는 소위 나가야(なかや)라 불리는 가로변을 따라 늘어선 일식 장옥이나 해방 이후 일식 장옥과 유사한 배치형태를 지니는 장옥형 주택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복합폭1켜 분할형, 복합폭2켜 분할형, 광폭2켜 등분할형들이다. 후자의 경우 가로변 장옥의 건축영역과 후면의 외부공간으로 분할되는 과정 및 단일의 건축물이 개개의 가구단위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채복구기와 압축성장초기 토지·건축물 소유권 분화의 특징적 현상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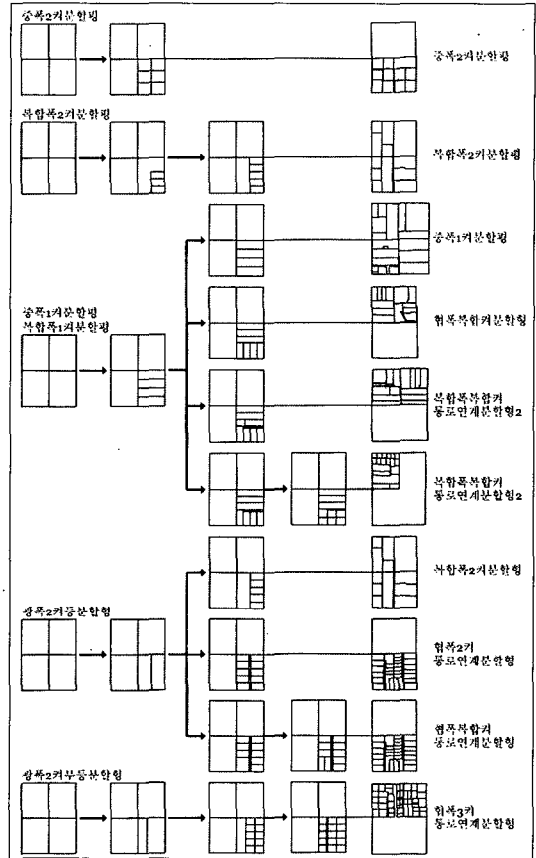


그림 14. 군산 조계지내 필지조직 변화과정 모식도

IV. 결론 : 형태단위구역의 분석을 통해서 본 군산도시 발달 이야기

형태단위구역에 기초한 도시형태분석은 도시발달과정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특히 다양한 형태요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내변형성이 강한 가로요소와 필지요소에 기초한 형태단위구역 분석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도시발달과정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14년에 제작된 지적원도와 2001년 현재의 지적도 및 다양한 지도자료를 중심으로 한 군산 시가지의 형태 단위구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선조 말기 이후 군산의 도시발달단계는 몇 개의 세부적인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부정형 가로특성과 필지특성을 지니는 도시조직을 지니면서 진행되는 산지나 구릉지 또는 해

도시조직을 지나면서 진행되는 산지나 구릉지 또는 해안저습지의 정주공간화과정, 외곽지역과 도시내 유통거점공간을 연결하는 도로변을 따라 가로중심의 선형 도시조직형태를 지나면서 발달하는 선형시가화과정, 산지나 구릉지의 지형여건에 적합하게 형성되는 가로를 따라 가로중심의 선형 도시조직형태를 지나면서 발달하는 선형시가화과정, 계획적 의도를 따라 저습지를 중심으로 가구형 도시조직형태를 지나면서 발달하는 면형 시가화과정, 기존 시가화구역의 힘이 확장되면서 가로중심의 선형 도시조직형태를 지나면서 발달하는 선형시가화과정, 가로개수와 필지세분화 및 필지병합과정과 어우러져 나타나는 도시조직의 재편과정 등과 어우러져 나타난 도시조직들은 서로 차별화된 형태 특성을 지나면서 군산의 도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1914년에 제작된 지적원도를 중심으로 도출되는 형태단위구역의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조계지를 중심으로 분포한 정형적 필지조직과 서측의 군산시가지 진입부를 중심으로 분포한 선형조직, 그리고 구릉지를 중심으로 분포한 부정형 조직은 대조적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축성포구를 거점공간으로 동령산을 중심으로 한 영동과 죽성동 일대에서 발견되는 가로중심의 선형 도시조직형태는 개항 당시 군산을 서해안에 자리잡은 한적한 어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기록이나, 단순히 개항기를 계기로 도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개항도시로서 군산의 의미를 자생적인 근대 상업도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군산부, 1934: 1936). 또한 동질적인 원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적도상에는 서로 다른 구성체계를 지니는 도시조직 - 가로중심의 선형 도시조직, 가구중심의 면형도시조직, 가구내 세가로 중심의 면형 도시조직 - 이 어우러져 있는 영화동 일대(1899년 각국 거류지)의 형태 특성은 도시조직이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적·내적 성격에서 변화하기 쉬운 유동적 현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한편 군산 조계지의 시기별 필지조직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로 도출된 플랜유닛(plan-unit) 변환패턴은 현재의 시가지 경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지는 가로와 더불어 도시경관의 기반요소로서 필지 위에 들어서는 건축물과 조경요소 등의 형태적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필지는 소유권과 관련된 형태요소로서, 필지조직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은 시기별 사회경제구조의 특성과 개개 토지소유권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도시경관의 변화과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실제로 형성초기에 거의 유사한 구성패턴을 지니고 있던 군산조계지내 필지조직의 변환패턴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시기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개 시기의 필지소유권과 결부된 필지경관의 물리적 특성-건축물 배치, 건축외부공간 분포, 토지이용, 건축물로의 접근체계 등이 플랜유닛(plan-unit)별로 서로 다른 관성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체보다는 부분에 바탕을 둔 도시경관 해석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시가지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부분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보다 큰 틀에서 군산조계지의 플랜유닛(plan-unit)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소위 전채복구기와 압축성장기는 현재 군산시가지에서 관찰되는 도시경관이 정착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기로 기록된다. 형태학적 측면에서 전후 1950년대 전채복구기와 1960년대 압축성장기의 도시화 현상이 지니는 의미는 1980년대 도심부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기 이전 도시경관의 기반을 형성하는 필지와 가로체계의 형태적 특성을 고착시켰다는 점에 있다. 전쟁과 압축성장기의 도시인구증가에 수반된 도시개발은 재래의 도시경관과 시가지경관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전후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수반되어 서비스시설과 주거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진행된 시가지내 필지세분화 현상은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동시기에 군산 조계지에서 관찰되는 필지 세분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가로변을 따라 늘어선 장옥 후면의 공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확충되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단일의 필지가 개개 가구단위의 건축공간을 기본으로 세분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 해방 이전 주요 도심 간선도로변 필지에서 국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좁고 세장한 형태를 지닌 소형 필지로의 필지 세분화 현상이 도심 전역으로 확산되고 소매기능이 확충되면서, 1980년대 이전 치밀한 열식 필지·건축구조를 지니는 도심지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물려든 도시인구를 생산현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채 거리로 쫓아낸 당시의 경제구조가 큰 몫을 하였다. 또한 도심지의 가구 내부와 도심 인접지역에서 도시형주택이 확충되면서 진행된 필지 세분화 현상으로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출되고 있던 세로와 막힌 골목길을 중심으로 집단화(clustering)되는 배치형태를 지닌 도시조직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건축구조와 어우러져 세장한 필지형태가 집합되는 형태로 나타난 선형필지조직은 1970년대 이후 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소유권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필지활동은 소유영역별로 소유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건축물 개수·개축·신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발 초기에 동일한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던 단일의 건축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수활동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장특성을 지니는 다수의 건축요소로 분화되고 공유되는 현상이 초래되거나, 일부 소유주의 증축이나 개축활동을 통하여 단일의 건물 안에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는 건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다른 측면에서 단일의 건물이 다수의 소유권으로 분할되는 결과는 재건축이나 신축을 통하여 도심 건축경관이 일거에 뒤바뀌는 현상을 상당부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필지분화 과정에 기초한 가로경관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주 1. 형태시기는 문화경관에 기여하는 물질적 형태의 특수성을 갖는 역사-문화적 시기와 동일하며 왕조와 같은 정치적 시기에 기초한 절대적 시간개념이 아니라 지리학적 공간에서 역사-문화에 의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물질적 형태의 혁신이 확산된 상대적 시기를 의미한다(유주형·이규목, 2001).

주 2. 단위필지를 기준으로 건축물과 공간이 조합되어 형성된

형태조합체를 도시형태단위(morphological unit)로 명명한다면 도시형태세포(morphological cell)가 토지이용과 결합되고 부지의 자연적 여건과 함께 기원론적으로 가장 작은 동질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결합된 단위로서 도시경관세포(landscape cell)를 형성하고 이들이 다시 위계적으로 조합되어 도시경관단위(landscape unit)와 내부도시지역(intra-urban region)을 구성한다.

- 주 3. 형식상으로 군산은 광무 원년(1897)에 개항된 목포와 진남포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선언방식에 의하여 광무 3년(1899) 5월 1일에 개항되었다. 군산에 거류지가 설치된 것은 1899년 10월 10일의 일로 군산 거류지는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거류하도록 개방된 각국 거류지로서 각국 거류지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본인도 개항당해 11월에 군산에 일본인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군산의 각국 거류지역 면적은 약 572,000㎡였는데 이중 여러 차례의 경매로 관민의 소유로 귀속된 토지가 157,541㎡였다. 그런데 이중 128,900㎡가 일본인 소유였고 나머지가 중국인 소유로서 군산은 명목상으로는 각국 공동조계지였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특별조계지와 다를 바 없었는데, 藤村道生은 日本特別居留地の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일본인의 거주 및 영업을 위해서 ② 개항장의 일부를 획정한 거류지로서 ③ 그 곳에서는 일본인 이외의 토지매입을 허용하지 않고 ④ 행정권은 일본정부의 대표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한국정부 혹은 각국 사신단의 개입을 거부한다. ⑤ 거류지의 유지비는 일본정부가 국에서 지출한 경비로 충당된다. ⑥ 그 곳에서는 미리 조선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류지제도를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⑦ 경찰관도 국고지번의 비용으로 상주시킴으로써 경찰관은 일본정부가 독점한다. ⑧ 전시에는 군사기지 또는 병참기지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藤村道生, 1964).

- 주 4. 연구대상지에서 도시조직개념에 기초하여 형태단위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군산 시가지를 분석단위구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 시가지를 구획하고 있는 가로들을 일정한 구간단위로 구분하고, 구획도로와 직접 연계되거나 골목길을 통하여 연계성을 지니는 필지군을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구획가로의 구간단위는 가로의 선형과 폭원, 주향특성을 토대로 구획도로간 결절점을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주향이 변하는 변곡점이나 서로 다른 폭원이 접하는 지점을 하위지표로 활용하여 설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분석단위별 형태특성에 기초하여 분석단위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분화된 하위분석단위들간 연계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필지의 형상, 면적, 전면적도폭원, 깊이, 방향특성이 분석지표로 활용되었는데, ① 필지형상이 급변하는 필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 ② 동질적인 형상을 지니는 경우 면적이 차별화되는 필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 ③ 동질적인 형상·면적을 나타내는 경우 전면적도폭원이나 깊이가 급변하는 필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 ④ 동질적인 형상·면적·접도폭원·깊이를 나타내는 경우 필지의 주향이 급변하는 필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을 주요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하위분석단위들 사이의 연계성을 토대로 이들을 통합하여 도시조직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도시조직은 기본적으로 연도변 필지군들과 연계된 단위구획가로공간들이 누적된 결과물로서 구체화되는데 단일가구나 가구집합체로부터 가로를 사이에 두고 늘어진 선형의 필지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지니게 된다.

주 5. 영동과 죽성리 주변으로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포복상이 집중되어 있던 송방골목(구 경찰서 입구를 연결하는 세가로), 조선의 상업자본가였던 객주들이 위탁판매업과 여관업, 금융업을 하던 객주거리(현 죽성동 동광한의원 앞길에서 해방로에 이르는 길), 모시전 거리(죽성동 전복 상호신용금고에서 꿩리호 선착장까지), 덕전거리(중앙로 2가 한일은행 골목), 싸전골목(구영동파출소 서편 일대), 농방골목(구 영동파출소 앞쪽 골목) 등을 중심으로 조선인 상권이 형성되었다. 한편 명치통(중앙로 1가)과 소화동(중앙로 2가)가 개설된 이후에는 일본인 상권은 각국 조계지역이었던 본정통(해방로)와 전주통(김이비인후과에서 영화동 코렉스마크까지) 그리고 명치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한국인 상권은 영동거리와 소화통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김중규, 2001).

주 6. 군산 거류지가 지닌 형태적 특성이 어떠한 기원을 지니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개항 당시 한일간에 체결된 「군산각국조계장정」의 내용을 통하여 그 특성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군산각국조계장정」의 내용은 「조영 조약」에 준거하여 체결된 「인천 각국 공동조계장정」의 내용 가운데 열강의 세력침투에 불리한 점이나 결점을 보충하여 체결된 「목포·진남포각국 조계장정」과는 제10조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광무 3년 6월 2일 한성에서 한국외부대신과 日佛英美露獨의 각국 사신간에 조인되었다. 당시 조인된 <군산·마산·성진 각국 조계장정>의 내용은 총 10개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개항장의 거류지를 착탈하기 위한 도주로서 거류지내 토지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외에 토지구획의 기본단위, 가옥형태규제, 거류지내 시설물설치규제 등 식민적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1899년 개항 당시 한국정부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군산·마산·성진 각국 조계장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해벽과 부두 및 화물을 양육하는 부두에 인접하는 개방지에서의 관세사무는 조선정부가 관할한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서도 점등과 경찰사무 조계사무공사가 담당한다. 둘째, 조계지구는 갑·을·병 3종으로 구분하며 촌락, 전답 또는 만조점 이상의 매립을 요하지 않는 지구를 갑지로, 고지대를 을지로, 매립을 요하는 해빈지구를 병지로 한다. 매각면적은 갑 및 병지구는 500㎡ 이상 1000㎡ 이하로, 을지구는 1000㎡ 이상 5000㎡ 이하로 제한한다. 셋째, 토지의 매각은 경매를 통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낙찰되며 토지의 경매원가는 100㎡당 갑지는 6弗, 을지는 3弗, 병지는 5弗로 하고 지조는 갑병지구는 6弗, 을지구는 2弗의 비율로 한다. 넷째, 조계의 지조는 조계사무공사가 한국정부의 대리자의 권한으로 직접 징수하며 조계사무공사는 어느 지구에서나 지조를 영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동지구면적 100㎡당 30센트만을 한국관청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조계사무공사의 수입으로 하고 조계경비에 충당한다. 다섯째, 조선정부는 해관의 청사와 창고 및 해관고용외국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계내에 지소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관유기선회사는 그 사무소와 창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계내에 토지를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다. 여섯째, 각 조약국정부는 원가만을 납부하고 그 영사관 부지로서 적당한 지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넓이는 최대한 15,000㎡를 넘을 수 없다. 일곱째, 조계내에서 지주가 될 수 있는 자는 본 규칙을 승인한 사신소속국 정부와 그 국민에 한하며 그 밖의 외국인과 일체의 조선인 관리라 할지라도 지구에 대하여 지권의 교부를 받을 수 없다. 여덟째, 조계내의 지구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지구에 250弗 이상의 가격으로서 가옥을 건축하거나 또는 기존의 가옥을 개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계공사는 그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 아홉째, 조계사무공사조직은 육구감리 또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한국관리와 동지방 주재의 영사 및 등록된 지주들이 선출한 3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선된 의원은 2명이 동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열째, 조계사무공사는 법인이며 일정한 인감을 사용하여 군산 각국 조계사무공사라는 단체의 명의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출소하거나 응소할 권한을 가진다. 조계사무공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소송은 조선외무대신과 경성 주재 각국 사신으로 조직된 법정에서 심리하되 다수결로 집행하되 다수결로서 결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한다.

인용문헌

1. 군산부(1934) 군산부사.
2. 군산부(1936) 군산개항성사.
3. 김중규(2001) 군산역사이야기-고지도와 옛사진으로 풀어본 군산역사. 군산: 도서출판 내인.
4. 손정목(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 서울 : 일지사.
5. 유주형, 이규목(2001) 유형형태학적 도시경관 연구방법의 시론적 고찰, 도시설계 4(1): 42-60.
6. 藤村道生(1964) 朝鮮における日本特別居留地の起源,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第35號, 名古屋大學, pp. 21-76.
7. 香川源太郎(1902) 韓國案內, 東京 : 靑水高山堂.
8. Conzen, M. R. G.(1960) The plan analysis of an English city center, in Norborg (ed) *Proceedings of the IGU Symposium in Urban Geography*, Lund.
9. Conzen, M. R. G.(1975) 'Geography and townscape conservation', in Uhlig, H. and Lienau, C. (eds) *Anglo-German Symposium in Applied Geography, Giessen-Wurzburg-Munich*, 1973, Lenz, Giessen.
10. Conzen, M. R. G.(1981) The Morphology of Towns in Britain during the Industrial era, in Whitehand, J.W.R. (ed) *Urban Landscap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1981, Academic Press.
11. Conzen, M. R. G.(1988) Morphogenesis, morphological regions and secular human agency in the historic town-

- scape, as exemplified by Ludlow, in Dietrich Denecke and Gareth Shaw (eds) *Urban historical geography: recent progress in Britain and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2. Dickinson, R. E.(1961) *The Western European City*.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London.
13. Kropf, K.(1993) An enquiry into the Definition of built form in urban morphology.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14. Kropf, K.(1996) Urban tissue and the character of towns. *Urban Design International* 1(3), pp.247-263.
15. Whitehand, J. W. R.(1992) *The making of the urban landscape*, Blackwell, Oxford.

원 고 접 수 : 2005년 1월 2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5년 2월 18일
3인익명 심사필